

전북지역 학교 문예지의 시대별 연구

이정욱*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5. 나오며 |
| 2. 일제강점기 전북의 교지 | 참고문헌 |
| 3. 광복과 한국전쟁기 전북의 교지 | <Abstract> |
| 4. 군사 독재 정권기 전북의 교지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전북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학교 교지 총 50종을 중심으로 시대별 교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교육이라는 공간을 표방하는 교지에서 시대별로 해당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 실려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관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지는 조선 총독의 훈화를 시작으로 총독부 정책에 공조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정책과는 무관하게 학생의 문학 작품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형평운동 등 당시의 사회운동을 교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전쟁이라는 국가적 혼란기에 교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전쟁을 통해 문학의 거장들이 지역 교지에 작품을 게재하고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지역 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인 글이 교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글 전용 정책은 교지에도 혼란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형태의 교지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부교수, E-mail: jukoo@jj.ac.kr

군사정권이 시작된 1960년대는 교지의 문예 부흥기라 할 수 있다. 한글과 가로 쓰기가 정착되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다양한 계층이 쓴 작품이 교지를 장식하였다. 이어진 1980년대의 군사정권에서 교지는 급격히 힘을 잃어갔으며 교지에 군사 문화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지, 전북,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 전쟁, 군사 독재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발달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문예지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60·70년대는 학교 교지(校誌)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정신 함양을 위해 교지를 발간하였다. 교지는 학교 잡지를 줄인 말로 교우회, 학생회, 동창회, 문우회, 친목회 등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의미한다.

교지에 실린 작품은 대부분 소속 교원이나 학생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개중에는 한국전쟁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성 문학가의 작품을 교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성장해서 문학가로 이름을 알린 작가의 초기 창작작품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 문단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교지 연구는 기존 문학 연구의 대상에서 중요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학사의 전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산업 발전기, 민주화 시기 등 다양한 시대에 발간된 교지 연구는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선행연구로 교지는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곳이며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대중에게 개방된 일종의 종합잡지”¹⁾라고 평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교지에 대해 “지역 학생들의 동인 활동과 매체 발간으로 지역 문학 사회가 활성화”²⁾되었으며, 김현승과 박흡이 광주고등학교 문예부원을 지도한 것은 “문단의 선배가 후배들을 지도하며 문학인으로 성장하게 한 대표적”³⁾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1) 오문석, 2002,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 (1)』, 『상허학보』, 상허학회, 26쪽.
2) 황태목, 2021, 『근현대 광주 전남 잡지의 지형과 특성』, 『국어문학』 제78집, 376쪽.
3) 이동순, 2016, 『학생 문예지에 나타난 지역문화적 특징-“학생문예”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문화회』 제5권 제2호.

전북 교지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 문물과의 접촉이 활발하던 군산을 중심으로 근대 매체의 세례를 입은 청년들이 잡지 발간⁴⁾을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교지 성장의 배경에는 “해방기부터 지역 문단을 지켜오던 문학인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이병기와 서정주의 문단 참여⁵⁾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정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교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북 교지의 시대별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학생 중심의 순수 문학의 장인 교지에도 시대에 따라 이념적, 사상적인 글을 주입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현대 로컬리티 잡지 수집 발굴 해제 및 DB화(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이하 사업단이라 함)”는 우리 문학사, 지역사에서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은 지역 잡지를 수집, 발굴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본 논문은 사업단이 오랫동안 수집해 왔고 현재도 수집하고 있는 191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전북에서 발간한 총 270여 종의 자료 중, 52종(실제 50종 88권)의 교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일제강점기 전북의 교지

1910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전북에서 간행된 교지 중 사업단이 발굴한 교지는 총 5건이다.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종 학교에서 발간한 교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한 교지의 소실과 교지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배경에서 전북 관련 교지는 그 수가 대단히 적다. 다음 표는 사업단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표이다.

전북 교지 중 첫 번째는 1923년에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가 발행한 등사본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보(臨陂公立普通學校 同窓會報)』 창간호이다. 회보는 매년 1월 3일과 8월 10일 정기총회를 겸해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과 한문으로 된 교지는 총 61쪽이며 회원은 조선인이 대부분이고 일본인 회원(柳田一雄)의 축하 글이 보이며, 뒷부분에는 재학생들이 쓴 “兒童文選”도 있다. 교사나 재학생이 주체가 아닌 동창회가 발간했음에도 재학생 후배들의 글

4) 최명표, 2015, 『전북 지역 근대 잡지의 사적 고찰』, 『영주어문』 제30집, 136쪽.

5) 하채현·황태목, 2018,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동인지 연구』, 『국어문학』 제67집, 국어국문학회, 298쪽.

을 신고 있어 매우 이례적인 교지라 할 수 있다.

〈표 1〉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가로/세로	언어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보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	1923.08.10	군산	61	세로	국한문
계림	이리공립농림학교	교우회	1933.07.31	익산	119	세로	일본어
고창	고창고보	학우회	1935.6.14	고창	155	세로	한글·일본어
회지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	교우회	1936.11	전주	173	세로	일본어
회보	전주사범학교	동창회	1941.12.20	전주	66	세로	일본어

내용은 동창회의 취지, 현황, 동창회 운동가, 회의록 보고, 회계 보고 등의 일반적 사항과 함께 당시 조선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형평운동을 다룬 “衡平運動의 文化的 意義”를 볼 수 있다. 동창회의 성격을 밝힌 “本會의 精神”은 玉洞學人이 썼으며 필명 위에 소장자의 수기로 보이는 ‘이인식’이라는 이름이 덧붙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春臯란 이름으로 “夏期 休暇에 際하여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가 실려있다. 옥동학인과 춘고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이인식(李仁植, 1901-1963)의 필명과 호이다. 이인식은 3·1운동 참여로 이미 옥고를 치른 적이 있으며, 출옥 후 자신의 토지를 처분해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냈을 만큼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회지에는 이인식 이외에 동창회 서기를 맡았던 독립운동가 황봉규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 명문고인 이리공립농림학교, 고창고등보통학교,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교지를 발행하였다. 『계림(鷄林)』 제6호는 1933년 7월 이리공립농림학교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발행하였다. 1924년 10월 16일 개교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1858-1936) 조선 총독의 축사를 신고 있다. 10년 동안의 학교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졸업생 명단과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재학 중인 일본인, 조선인 학생의 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주를 그리워하다”, “시국에 나타난 국민성의 일단”, “총후(銃後)의 의무”의 글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창(高敞)』 제10호는 고창고등보통학교가 1935년 6월 14일에 발행한 교지이다. 대부분 한글과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일본어가 보인다. 재학생의

동화, 소화(小話), 창작, 논단 및 감상이 있으며 특히 이재원의 ‘조선연극에 대하여’(9쪽 분량)는 연극의 역사는 물론 조선연극의 현황과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있어 학생이 썼다고는 믿지 못할 만큼 조선연극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다.

교지에는 일본인 마스토미 야스자에몬(栴富安左衛門, 1880-1934)에 대한 추모글이 눈에 띈다.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마스토미는 1905년 고창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지역의 교육 사업과 기독교 전파에 공헌한 업적으로 1995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인물이다. 마스토미는 고창고등보통학교와 전신인 오산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십 년 동안에 십여만 원의 경비는 전부 설립자되는 승부씨가 자담을 하였고, 아직까지 학생에게는 월사금 같은 것도 한 푼도 받지 아니함으로 모든 경비는 설립자가 부담”⁶⁾하여 배움을 길을 마련해 주었다. 학교에 거액을 기부하였음에도 조선인의 교육은 조선인의 손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은 경영해서 물러났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학생을 받아주기도 했으며, 조선인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스토미의 유지는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폐교된 전주 신흥학교 학생들이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지는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한 마스토미를 추모하기 위해 별도의 지면을 구성해 일본인의 죽음을 애도한 조선인과 조선인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이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추모 글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유족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스토미가 생전 “총독 정치의 덕택”에 조선에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다고 밝힌 사실과 고창 지역의 소작제 농장 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 경영에 전혀 투입하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편승한 식민지 지주”⁷⁾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회지(會誌)』 제6호는 1936년 11월 전주공립고등보통학교가 발간한 교지이다. 1935년 발행 예정이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발행이 늦어진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1935년 6월 5일에 학교를 방문한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68-1956)의 훈시를 실고 있다. 우가키는 1927년 4월 4일

6) 『全北教育界의 新星-일본인 승부 씨의 교육열로 신설된 오산고등보통학교』, 『동아일보』, 1921년 5월 11일, 3면.

7) 이규수, 2001, 『마스토미 야스자에몬은 ‘한국의 은인’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호, 역사와 책임, 133쪽.

부터 1927년 12월 10일까지 3대 총독, 1931년 6월 17일부터 1936년 8월 4일까지 제6대 총독을 역임한 인물이다. 훈시에서 우가키는 1927년에도 방문한 적이 있음을 밝히며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라는 “비상시국이지만 일본에 비해 조선은 아직 여유로운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지는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에 대한 행사 기록과 수학 여행기,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 작품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신 개조 운동의 일환인 교풍진흥운동(矯風振興運動), 국민정신작흥(國民精神作興)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1941년 12월 20일 전주사범학교 동창회가 발행한 『회보(會報)』 제1호는 회원들의 소식과 모교 근황, 회원 명부 등이 일본어로 기록되었으며 총 66페이지이다.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보』가 동창회보의 역할과 함께 회원의 작품, 재학생들의 작품까지 수록하였다면 『회보』는 단순히 동창회보의 역할이었다.

3. 광복과 한국전쟁기 전북의 교지

1) 광복 이후 전북의 교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격변기를 맞이한 전북에서 교지 발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고의 전신인 전북공립중학교, 전주여고의 전신인 전북공립여자중학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지를 발행하였다.

〈표 2〉 해방 이후-한국 전쟁 전 전북지역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가로	기타
죽순	전북공립중학교	문예부	1947.06.01	전주	2	세로	국한문
거울	전북공립여자중학교	문예부	1949.07.10	전주	20	가로	한글
기린봉	전주공립중학교	학도호국단 문예부	1950.04	전주	50	가로	한글

전북공립중학교(북중)는 1947년 6월 1일 『죽순(竹筍)』 제4호를 발행하였다. 제5호가 7월 1일에 발행된 것을 보면 1947년 초부터 매월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신문형식의 교지이다. 타블로이드판으로 2쪽에 지나지 않는 짧은 소식지 형태지

만 논문 “佛蘭西革命的 歷史的 意義”와 “未開地를 開拓하는 사람들”, 시, 수필, 영화감상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싣고 있다. 특히 2학년 우상호(禹相昊)의 “建國汽車通學生歌”에서는 해방 이후 전주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 | |
|-----------------------|-----------------|
| 1, 湖南平野 넓은 들에 우리의 理想 | 우렁찬 汽笛소리 우리 行進曲 |
| 希望품은 北中の 汽車通學生 | 活氣로운 北中の 汽車通學生 |
| 2, 꽃이 피는 우리 가슴 朝鮮의 보배 | 無窮花 아름다운 우리 聖堂에 |
| 理想높은 北中の 汽車通學生 | 活氣높은 北中の 汽車通學生 |
| 3, 벽空하늘 맑은 물결 親誼의 동무 | 孤寂의 淨化품이 새로운 幸福 |
| 美風있는 北中の 汽車通學生 | 傳統있는 北中の 汽車通學生 |

창가 형식을 사용해 조선의 상징(무궁화), 지역의 상징(호남평야), 학교의 상징(聖堂, 北中)으로 해방의 기쁨과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달리는 기차로 노래하고 있다.

『죽순』 제5호(1947년 7월 1일), 『죽순』 제6호(1947년 11월 1일), 『죽순』 제10호(1948년 12월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죽순』의 후속 교지라 할 수 있는 『전통(傳統)』 창간호(1951년 12월 23일)의 편집 후기에는 “『죽순』 제11호가 나온 지 2년하고 넉 달” 만에 『전통』을 창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죽순』은 1949년 8월까지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죽순』 제6호는 타블로이드판이지만 4쪽으로 증편되었으며 교사, 학생의 문예 작품은 물론 학교의 자랑이었던 축구부와 야구부 선수의 포지션까지 기록하고 있다. 학생논단 “宗教에 對한 再認識”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조세형(1931-2009)의 글로, 금산교회의 조덕삼(1867-1919) 장로와 고용인이었지만 목사가 된 이자익(1879-1958) 이야기⁸⁾로 유명한 장로의 손자이기도 하다. 또한 단편소설, 수필, 기행문, 논문, 시를 대상으로 문예부 예술상을 제정해 학생문예 진흥과 원활한 원고모집을 기획⁹⁾하였다.

8) 1905년 김제 금산의 자신의 집 일부를 제공해 교회로 사용한 조덕삼은 당시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진학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자익 목사는 일제강점기 친일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해방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덕삼의 아들이자 조세형의 부친 조영호는 사재를 털어 유광학교를 설립했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9) “다만 한가지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優秀한 文才를 지니시고도 너무 投稿를 사양하는 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同志 여러분은 倍前한 鞭撻과 積極인 投稿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집 후기, 『죽순』 제6호, 1947년 11월 1일, 4면.

『죽순』 제10호 또한 학생문에 작품을 실고 있고 이전 호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1948년 12월에 발행한 제10호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 호와 비교해 한문이 대폭 줄고 한글 비중이 증가한 것과 횡서(橫書), 즉 가로쓰기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글의 순서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제10호의 표기법 변화는 해방 이후 새롭게 일기 시작한 한글 표기법 개정과 깊이 연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글 간소화로 대표되는 한글 표기법 개정은 해방 이후 꾸준히 제기된 사회의 이슈였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자가 최현배(崔鉉培, 1894-1970)이다. 최현배는 “우리의 눈앞에 열린 세계는 횡(橫)의 세계이요, 현대는 민중의 횡의 시대이며, 현대문화는 가로의 문화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자연적이며 합리적이며 따라 가장 능률적인 가로글씨로 하기를 주장한다.”¹⁰⁾ 한문의 형식과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익숙했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세로쓰기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국가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로 여겨지고 있었다. 게다가 한글 간소화를 “이승만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을 기용하고 비호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기획했던 정책”¹¹⁾으로 판단하였다.

한글 간소화 정책은 이승만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1954년 7월 24일 미국 방문을 앞둔 기자 회견에서 각자의 판단대로 할 것을 당부하며 끝났다.¹²⁾

『죽순』 제10호는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에 맞춰 발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1949년 7월에 전북공립여자중학교가 발행한 『거울』 제3호도 이에 따르고 있다.

전주공립중학교의 『죽순』의 후속 교지라 할 수 있는 『기린봉』 제4호는 1950년 4월에 발행되었다. 편집 후기를 통해 제1호는 1949년 봄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 교감의 글의 경우 한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린봉』 제4호는 이들의 글에서 한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필요할 경우 한글에 한문을 병기하고 있으며 학생의 글은 모두 한글과 가로쓰기를 사용하고 있다.

10) 최현배, 「한글 가로쓰기 提言」, 『동아일보』, 1946년 10월 22일, 4면.

11) 유상수, 2020, 「한국전쟁기 학술원의 창립과정과 한글간소화 파동」, 『승실사학』 제44집, 승실사학회, 183쪽.

12) “현행 맞춤법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이 한글의 이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습관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이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발언한 것을 통해 이승만의 강경방침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정재환, 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0쪽.

특기할 사항은 시인 구름재 (박병순, 1917-2008)의 “고동치는 못 가슴에 믿고 미더운 단군 혼을 담게 하라. 이 믿음만이 이 학원 이 사회 이 나라 이 겨레의 앞길을 유구히 약속할 단 하나의 태양이러라.”라는 헌사이다. 전주공립중학교의 교사였던 박병순이 교지를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 전쟁기 전북의 교지

한국 전쟁기 전북지역이 북한군의 수중에서 벗어난 1951년 후반, 안정을 되찾은 전주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산간 지역은 잔존 북한군과 빨치산의 습격으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전주를 제외하면 김제에서 발간한 『햇불』이 유일하다.

〈표 3〉 한국 전쟁 기간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가로	기타
희망	전주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	아동문집 출판부	1951.05.25	전주	13	가로	한글
전통	전주고등학교	문예부	1951.12.23	전주	50	세로	국한문
창	전북고등학교	학우회	1952.02	전주	43	가로	국한문
고광편	전북고등학교	학우회	1952.	전주	40	가로	국한문
햇불	김제중·고등학교	문예부	1953.04.20	김제	68	세로	국한문

1951년 5월 25일에 전주사범학교부속국민학교는 『희망』 제1호를 발행하였다. 교지의 제호는 교장의 머리말¹³⁾에서 알 수 있듯 전쟁의 상처에서 어린인들이 희망을 찾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지는 “전선에서 장병이 싸운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글을 짓고 힘을 길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희망』 9월호 (1951년 9월), 『희망』 제6호(1952년 3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쟁 기간에도 꾸준히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3) “제각기 희망을 갖는 것과 같이 민족으로서도 희망을 갖아야 한다. 우리 겨레의 오늘의 희망은 조국의 통일이다. 아 거룩한 사업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야 한다. 옛날 영불 전쟁에 푸란쓰 소녀 잔누달크의 불타는 희망과 노력이 승리를 갖아오게 한 사실을 거울삼자. 이 문집 발간도 일선 장병에 못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글짓는 힘을 길르며 三一정신을 복돋아 조국 통일의 희망달성에 힘이 되자는 것이다.” 『희망』 제1호, 전주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 1951년 5월 25일.

『희망』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이치에 맞지 않은 그림 찾기, 이솝이야기, 과학 상식을 알리는 글도 보이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시(詩) “파리와 공산군”(『희망』 제1호), “군인 오빠”(『희망』 9월호)가 눈에 띈다.

파리와 공산군

파리와 공산군은 고향이 한 곳이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봐요.

파리는 디디티면 고만이고요. 오랑캐는 국군이면 그만일 께요.

파리는 우리들을 병으로 인도하고 공산군은 우리들을 주검으로 인도한대요.

군인 오빠

우리 오빠 군인 오빠, 대한민국 육군하사

우리 오빠 군인 오빠, 오랑캐를 못찌렀네

우리 오빠 군인 오빠, 일선에서 승리했네.

2학년(파리와 공산군)과 4학년(군인 오빠) 학생이 쓴 시로 무절러야 할 대상으로 공산군을, 공산군을 무절러줄 자랑스러운 군인 오빠를 노래하고 있다. 『희망』 제6호는 1951년 12월 21일 완주군 용진 비행장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의 강연회에 3학년 이상 학생이 모두 참석했다는 사실과 1952년 1월 15일부터 15일간 신병교육대가 학교 강당을 사용했다는 정보도 기록하고 있다. 국민학생의 교지임에도 전쟁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처럼 전쟁을 그린 작품이 많이 실린 교지가 1953년 김제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햇불』 속간호(1953년 4월 20일)이다. ‘韓國의 動亂과 우리의 覺悟’, ‘兵役小考’, 전시 입대하는 젊은이를 그린 학생 단편소설 ‘太極旗’를 통해 당시 교지에서 전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을 다룬 작품이 많았던 『희망』과 『햇불』에 비해 전주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전통(傳統)』 창간호(1951년 12월 23일)는 전쟁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주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전통』은 해방 후 발간한 『죽순』과 『전고(全高)』(1953년 12월 20일 창간)를 이어주는 교지이다. 교지는 “平生을 愛國과 教育에 바치고 가신 故 金嘉全 先生의 靈前에 삼가 이 작은 冊子를 올리나이다.”의 추모의 글로 시작된다. 김가전(1892-1951)은 1946년 2월 전

죽북중 교장으로 부임한 후, 1949년 12월부터는 전북 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해방 후 전주고를 이끈 교육자였지만, 공무 수행 중이던 1951년 10월 5일 사망하였다. 김가전은 서문교회 목사를 역임하고 상하이로 망명한 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인전(金仁銓, 1876-1923)의 동생이기도 하다.

『전통』 창간호에서 주목할 것은 학생의 작품과 함께 기성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정주의 ‘쭉나무’와 이철균의 시 ‘牛觀圖’가 함께 실렸다. 편집 후기에는 “韓國 詩壇의 거장이신 徐廷柱先生 詩人 李轍均 河喜珠先生 그리고 特別히 여기에 조해가 깊은 現 校長先生 金敎善先生님들을 모시고 뛰어난 傳統을 물려받아 더욱 찬란한 傳統이 老松台 고운 터에 불기둥처럼 서리라 믿으니 기쁜 마음 禁할길 없다.”¹⁴⁾고 기록하고 있다. 지역 교지에 서정주, 이철균, 하희주 등 기성 문단의 작가들이 글을 신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지역과 연관이 깊은 문인들이 전주로 내려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이후 부산과 대구 등에 체류했던 문인들은 서울로 되돌아간 것에 비해 전주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문인들이 남아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12월 발행한 『전고』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는 “本校 文藝班의 指導 先生님은 他校에서 볼 수 없을만큼 強力陣이다. 금년 가을까지 韓國詩壇의 重鎮 徐廷柱先生을 비롯하여 新銳詩人 李轍均, 河喜珠 兩先生 및 文學 研究家이신 金敎善 先生님이 계셨고, 現在는 韓國文學史 上的 耆宿이신 金海剛 辛夕汀 兩先生님 및 詩人 白楊村 구름재(朴炳淳) 先生님이 계시다.”¹⁵⁾고 밝히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정주, 이철균, 하희주의 경우 서울로 돌아갔지만, 이병기, 김해강, 신석정, 백양춘(신근), 구름재(박병순)는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직하며 교지의 지도와 창작 지도를 맡고 있었다. 한국 전쟁기 중앙 문단의 작가와 지역 문단의 작가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지는 어느 시기보다 문학적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 전쟁기 이후 전북의 교지

한국 전쟁 기간 전주의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발행하였던 교지는 전쟁이 끝난 이후 지역의 다양한 초·중등학교에서 발행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시기는 전쟁의 상흔을 복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기였으며, 각종 학교 교지의 창

14) 편집 후기, 『전통』 창간호, 전주고등학교, 1951년 12월 23일, 50쪽.

15) 편집 후기, 『전고』 창간호, 전주고등학교, 1953년 12월 20일, 120쪽.

간호 발행과 지역 학교가 연합해 교지(문예지)를 발행함으로써 교지 전성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1950년대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가로	기타
북중	전주북중학교	학도호국단	1953.09.20	전주	39	세로	국한문
여명	군산사범부속국민학교	군산사범부속국민학교	1953.10	군산	402	가로	국한문
풍토	전주고등학교	동인회	1953.12.20	전주	59	세로	국한문
전고	전주고등학교	학도호국단	1953.12.20	전주	120	세로	국한문
반딧불	전주사범병설중	3학년 4반	1953	전주	25	가로	한글
풍토예술	전주고교 연합	동인회	1954.09.01	전주	26	세로	국한문
남성	남성중·고등학교	학도호국단	1955.06.30	익산	154	세로	국한문
녹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군산중앙여자중학교	문예부	1955.10.01	군산	138	세로	국한문
옥잠화	전주성심여자중고등학교	학도호국단	1956.12.25	전주	87	세로/후가로	한글
군고	군산고등학교	학도호국단	1957.02.20	군산	155	가로	국한문
학	전주사범학교·병설중학교	학예부	1957.06.04	전주	176	세로	국한문
일송	전주상업중학교	재건학생회	1958.02.15	전주	121	세로	국한문
맥랑시대	전주고등학교	동인회	1959.05.05	전주	51	세로	국한문

1953년에 전주북중학교에서 발간한 『북중(北中)』 제2호(1953년 9월 20일)는 학교의 역사와 재학생들의 장래 희망,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보호자 직업, 신앙, 통학 여부, 성별(性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학생의 문예 작품도 보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분단이라는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이념적인 경향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과 공산주의에 대해 경계하는 ‘間諜은 休戰없다 總力으로 막아내자’, ‘내 마을 내 집에는 共產徒輩 없는가’라는 포스터를 교지에 실어 여전히 전쟁이 교육 현장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중(北中)』 제3호(1954년 7월 20일)는 가로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 전쟁에 참전한 학생이 쓴 단편소설을 실고 있다. 학도병으로 참여해 체험한 진안 ‘마이산의 싸움’, 1951년 10월 기차로 전주에서 남원을 향하던 중 빨치산에 의해 열차가 습격당한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쓴 단편소설 ‘습격당하던 날’이 그 작품이다. 한국 전쟁을 직간접으로 체험한 학생들의 작품은 전쟁

의 체험과 기억이 교지에 등장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편집 후기는 해방 이후 발생했던 한글 간소화 움직임이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글 간소화 문제로 국민 전체가 들석거리는데 이 때 우리 “北中”은 육중한 바다의 물결이 출렁거리고 산과 들이 모두 푸른 7월의 푸른 꿈을 안고서 제3호라는 커다란 글자를 앞가슴에 붙이고서 당당히 탄생하였습니다.”¹⁶⁾ 교지는 한글 간소화에 맞춰 가로쓰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문으로 된 “北中”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전통만은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국어정화예의 노이로제”¹⁷⁾, “한글 일색의 횡서 편집을 결행”¹⁸⁾하도록 해 교지 편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심여자중·고등학교가 1961년 발행한 『옥잠화』는 한글 간소화 정책에 따라 편집을 실행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을 앞선다는 즐거운 일”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956년 한글 전용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글 전용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문교부가 1956년 10월 16일 발표한 한글 전용에 관한 담화문이다.

문교부 관하에 16일 문교부에서는 전국 각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학원 내에 있어서의 게시문 표지물 간행물 기타 학교 각종 문서에는 한글을 전용하라”고 거듭 지시하였다. 동 공문에 의하면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 및 학술강습소 유치원 기타 교육기관에서 사무실 및 교실의 표지문을 비롯하여 교내 게시문 학생 이름표 졸업증서 수료증서 상장 감사장 각종 증명서 교기(校旗), 우승기 운동복 기타 표지문과 또한 교보(校報) 교내 문예 등 학교에서 편집 발간하는 일체의 간행물을 순한글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모표(帽標) ‘밭지’ 단추 및 교기의 변경에 대하여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여 실시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¹⁹⁾

16) 편집 후기, 『북중』 제3호, 전주북중학교, 1954년 7월 20일.

17) 편집 후기, 『기린봉』 창간호(전주남중)·제13호(전주상업고등학교), 전주남중·전주상업고등학교, 1960년 2월 17일.

18) 편집 후기, 『옥잠화』 제10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1961년 2월 1일.

19) 『한글 專用 거듭 指示』, 『조선일보』, 1956년 10월 17일, 석간 3면.

문교부는 교육기관의 모든 문서뿐만 아니라 학생 이름표, 졸업증서, 수료증서, 상장, 감사장, 교기(校旗), 우승기, 운동복, 교지까지도 순한글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모든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및 공중표식물과 숫자는 한글로, 학술용어는 한자를 괄호 안에 첨서(添書)”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상명하달식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많았다.²⁰⁾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도 이에 따르지 않고 있었으며 신문에서는 연일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글 전용 정책과 함께 교지에 투영되는 정부 시책이 1950년대 후반부터 뚜렷해지는데 이는 각종 맹세(盟誓)의 등장이다. 『북중』 제3호(1954년 7월 20일)의 학생의 맹세, 『옥잠화』 제9호(1957년 9월)의 우리의 맹세, 『남성(南星)』 제2호(1959년 3월 1일)의 우리의 맹세, 『기린봉』 제13호(1960년 2월 17일)의 우리의 맹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맹세 (전주북중학교)

- 1, 우리는 一民이다. 眞理에서 살자.
- 2, 우리는 一民이다. 自由롭게 배우자.
- 3, 우리는 一民이다. 公正히 行하자.

우리의 맹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 부수자.
-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대부분의 교지 시작 부분이나 끝부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맹세’나 ‘학생의 맹세’를 게재하였다. 1949년에 이승만 정부는 각 학교에 학도호국단(1949년 3월 9일)을 조직하고 ‘우리의 맹세’, ‘학생의 맹세’, ‘청년의 맹세’를 공포(1949년 7월)하였다.²¹⁾ 학생회에 준하는 조직인 학도호국단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교지의 발행 주체로 등장하였다. ‘학생의 맹세’의 경우 이념적인 색채는 느낄 수 없으나, ‘우리의 맹세’는 충성, 공산주의 타도,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1949년 정부가 공포한 맹세이다.

20) 『한글 專用法改定安에 對한 批判』, 『동아일보』, 1955년 2월 11일, 1면.

21) 『우리의 盟誓等 三盟誓를 制定』, 『조선일보』, 1949년 7월 29일, 2면.

우리의 맹세

- 1, 충성은 조국에, 2, 사랑은 민족에, 3, 목숨은 통일에

학생의 맹세

- 1, 진리에 살자, 2, 자유롭게 배우자, 3, 공정히 행하자

청년의 맹세

- 1, 알고 행하자, 2, 의리에 살자, 3, 용감히 싸우자

1949년 공포된 맹세의 교지 게재는 강제는 아니었던 듯 하다. 의식개선, 생활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듯 선전적인 구호는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분단으로 막을 내리고 안정화를 되찾아가던 1950년대 후반에 교육 현장에서 맹세는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했으며 교과서 등에 게재해야 했다. 전주북중의 경우는 “우리는 一民이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했다. ‘우리의 맹세’는 전쟁 중인 1952년 개정하여 “죽음”, “강철”, “단결”, “공산 침략자”, “백두산”을 추가함으로써 정치 선동적인 문구로 변모함으로써 이루어 지 못한 통일을 위해 죽음으로써 단결할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맹세 시리즈의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은 1937년 10월 2일에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가 지정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ノ誓詞)’다.

황국신민서사

- 1, 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 하련다.
-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하련다.

‘황국신민서사’는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성스러운 백성’으로 개조하기 위한 황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어 사용 의무화, 신사참배 등과 함께 시행되었다. ‘황국신민서사’는 일본은 물론 대만,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식민지에는 없었으며 오직 식민지 조선에서만 시행한 제도이다. ‘황국신민서사’와 ‘맹세’는 ‘황국신민’이 ‘우리’로, ‘서사’가 ‘맹세’로 바뀌었을 뿐이며

“충성”, “신애협력”, “단결”, “인고단련”은 “충성”, “단결”,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맹세’는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만 바뀐 채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일제의 잔재라 할 수 있다. ‘맹세’는 1960년 4·16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곧바로 폐지되고 더 이상 교지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1968년 ‘국기에 대한 맹세’로 다시 부활하였다.

4. 군사 독재 정권기 전복의 교지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고 장면 내각이 등장했지만, 곧바로 1961년 5월 16일 쿠데타가 발생해 군사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정권 안정을 위한 문화적인 정책은 이전 정권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전복 교지 중 가장 많은 수인 17종이 이 시기 발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등 다양한 지역의 초·중·고에서 교지를 발행하였다.

〈표 5〉 1960년대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가로	기타
동원	이리고등학교	문예부	1960.02.17	익산	116	세로	국한문
가로수	가로수문학동인회 (고창고)	동인회	1962.01.15	고창	60	세로	국한문
영란시원	전주여자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2.11	전주	33	세로	한글
원우	원광중·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4.01.22	익산	169	가로	국한문
햇불	신태인 중·상업고등학교	문예부	1964.03.22	정읍	177	가로	한글
지원	김제중앙중·농업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4.10.07	김제	229	세로	한글
비둘기	원광여자중·상업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4.11.20	익산	206	세로	한글
기전	기전여자중·고등학교	문예부	1964.11.20	전주	242	세로/후 가로	한글
솔	전주공업고등학교	문예반	1964.12.20	전주	211	세로	국한문
신흥	신흥고등학교	문예반	1965.01.20	전주	260	세로	한글
매화	부안여자중·고등학교	문예부	1965.01.20	부안	226	가로	한글
군원	군산종합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5.01.31	군산	188	세로	국한문
해경	군산수산고등학교	재건학생회	1965.02.20	군산	156	세로	국한문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 가로	기타
목련원	이리중앙국민학교	이리중앙 국민학교	1965.10.10	익산	100	가로	한글
한길	이리중·상업고등학교	이리중·상업 고등학교	1965.10.30	익산	248	세로	국한문
성원	이리남성여자중· 고등학교	학생회	1965.12.25	익산	282	세로	한글
향파	군산여자중·고등학교	문예반	1968.01.16	군산	202	세로	국한문
새싹	이리남중·농고	문예부	1969.11.18	익산	198	세로	한글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옥잠화』 제14호(1963년 1월 23일)는 박정희 정권이 권한대행(1962년 3월 24일-1963년 12월 16일)으로 있던 시기에 발행한 교지로 끝부분에는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알리는 혁명 공약을 수록하고 있다.

- 1, 반공을 국시에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한 교지와 교차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교지에 혁명 정부의 공약이 게재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승만 정부에 학도호국단이 있었다면 박정희 정부는 재건학생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 또한 혁명 정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1960년대의 교지는 이념적인 성향의 글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기전(紀全)』 제7

호(1966년 12월 20일)의 ‘월남통신’ 정도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여고생들의 편지 교환을 싣고 있는데 군인들이 보내온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하는 정도이다.

1960년대 교지는 여전히 세로 형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으나, 가능한 한문을 배제하고 한글로만 구성된 교지가 점차 증가하였다. 한글만으로 된 교지가 10종으로 특히 여학교 교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에 태어나서 한글 전용 정책 과정의 소용돌이에 있던 학생들로 한문보다는 한글에 더 친숙한 첫 세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의 적극적인 사용과 함께 교지에 기성 문단의 문학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여자중·고등학교의 『성원(星苑)』 제4호(1965년 12월 25일)에 이기반, 유근조,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기전(紀全)』 제5호(1964년 11월 20일)에 전형순, 『기전(紀全)』 제12호(1971년 12월 25일)에 이기반, 이운용, 구름재, 유근조, 홍선복, 신흥중·고등학교의 『신흥(新興)』 제14호(1965년 1월 20일)에 김해강, 최세훈, 이환용, 오세영, 배태인, 강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쟁기 교지가 전주로 거처를 옮긴 문학인들과 연관되었다면, 1960년대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문학인들이 교지에 투고와 지도를 하고 있다.

1964년 『기전』에 ‘나의 女高時節’을 게재한 소설가 전병순(田炳淳, 1929-2005)은 전남 장성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창작활동을 해 왔고, 1961년 한국일보 현상소설에 여순 항쟁을 다룬 ‘절망 뒤에 오는 것’이 당선되며 여류소설가로 활동하였다. 1967년 6월부터는 조선일보에 “또 하나의 고독”을 1년여간 연재하며 활발히 활동하던 작가로 소설은 이후 영화(“당신”, 1969년)로 제작되었다. 『혼불』의 작가 최명희가 기전여고 2학년 편집부원으로 있던 시기와 전병순이 『기전』에 게재한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 최명희 작가의 시작점에 전병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명희는 ‘잊혀지지 않는 일’ (『기전』 제5호, 1964년 11월 20일, 동국대 주최 전국 고교 백일장 장원), ‘고독한 젊음이의 기도’ (『기전』 제7호, 1966년 12월 20일, 졸업생 특집 기고), ‘꽃관’ (『기전』 제12호, 1971년 12월 25일, 동문 특집)을 게재하며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교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전북 교지의 특징으로 페이지의 증가, 학교 간 교류, 학부모 참여, 앙케이트 조사 등 학교 문화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첫째, 교지 지면의 증가다. 남성여자중·고등학교의 『성원』(282쪽), 신흥중·고등학교의 『신흥』(260쪽), 이리중·상업고등학교의 『한길』(248쪽),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기전』(242쪽),

김계중앙중·농업고등학교의 『지원』(229쪽), 부안여자중·고등학교의 『매화』(226쪽)로 200쪽을 넘는 지면에 많은 작품을 실고 있다. 지면의 증가는 소설, 시, 기행문, 동요, 시나리오, 대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많은 학생 문인의 참여를 의미한다.

둘째, 학교 간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전 교지가 단일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작품만 실었다면 이 시기는 남학교, 여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학생 문학을 교차로 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필 릴레이’ (『기전』 제7호, 1966년 12월 20일)를 구성해 미션 계열학교인 순천 매산고등학교,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전주신흥고등학교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통신’ (『기전』 제7호, 『기전』 제10호, 1969년 11월 25일)에는 해외에 파견된 교사(EWC 초청으로 하와이 유학 중인 교사, 미국 유학 간 교사)와 선배 (“부러울 독일”, 조정숙, 3회 졸업생, 독일 병원 간호사, “미국의 국민성” 유란순, 졸업생)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생이 교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앙케이트 조사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교류가 눈에 띈다. 신태인중·상업고등학교의 『햇불』제2호 (1964년 3월 22일)는 선생님 앙케이트²²⁾, 『기전』제5호 (1964년 11월 20일)는 ‘내가 보낸 사춘기’, 이리중앙국민학교의 『목련원』(1965년 10월 19일)은 교사와 사모를 대상으로 앙케이트²³⁾, 남성여자중·고등학교의 『성원(星苑)』 제4호 (1965년 12월 25일)는 선생님 앙케이트²⁴⁾, 『기전』제10호 (1969년 11월 25일)는 전주 지역 중·고등학생, 신문사 기자, 군부대 간부 등을 대상으로 ‘밖에서 본 기전’²⁵⁾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교지에 실고 있다. 앙케이트는 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에게 정보처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범위는 교사의 가족인 부인까지도 대상이

-
- 22) 1, 하루 중 어느 때가 제일 기쁘신지요? 2, 학창 시절에 인상이 남는 일, 3, 학생을 제재하실 때의 심정은? 4, 교편생활을 통해서 기뻐던 일 한가지, 5, 아이는 몇이나 두실 계획? 6, 권하고 싶으신 책? 7, 졸업생을 위해서 한 마디.
- 23) 선생님에게 1,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는? 2, 제일 기뻐올 때는? 3, 가장 서운했다고 생각되는 때는?
사모님에게 1, 장래의 희망을 알고 싶습니다. 2, 생활에서 큰 불만이 있었다면? 3, 선생님을 보람있게 도우실 때는?
- 24) 1,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 2, 눈 오는 밤엔 어디를? 3, 세상에서 단 하나를 골라 가지라던 무엇일? 4, 가장 경건해지는 시간은?
- 25) 1, 거리에서 본 기전생의 아름다운 인상을 써 주십시오. 2, 기전생을 동·식물에 비유한다면 무엇에 가깝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 기전생에게 기대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되었으며, 앙케이트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전북의 교지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수집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발행이 감소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업단이 확보한 자료는 총 4종에 지나지 않는다.

〈표 6〉 1970년대 교지

교지명	발행처	주체	연도	지역	면수	세로/가로	기타
MINERVA	전주고·전주여고	편집부 9대	1973.08.08	전주	138	가로	국한문/영어
한서문	성원고등학교	편집부	1977.12.24	남원	144	가로	한글
날개	원광고등학교	문예부	1979.09.01	익산	80	세로	국한문
송림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편집부	1984.01.25	전주	253	가로	국한문

전주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발행한 『MINERVA』 제3호(1973년 8월 8일)는 “世代를 責任질 靑年 elite”²⁶⁾들의 잡지이다. 1973년에 회원이 제10대인 것으로 보아 모임은 1964년에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제호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은 전주 지역의 명문교인 양교 학생이 영어를 통해 문학 활동을 하였다. 재학생들은 물론 선배들의 글도 발견할 수 있으며 기수별로 10여 명이 회원이고, 회원 대부분이 유명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보아 양교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대 회원이 남학생 이름만 보여 전주고에서 시작해 이후 전주여고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3월 개교한 남원 성원고에서 발행한 『한서문(澣書門)』 창간호(1977년 12월 24일)는 학교의 역사가 짧음에도 교지를 발행하였다. 수필, 시(시조), 논단, 독후감 등 교사들의 글과 함께 학생의 글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원 지역의 영업점 10여 개가 축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1984년 1월 전주 근영여고가 발행한 『송림(松林)』 제4호(1984년 1월 25일)는 교사와 재학생 작품, 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부모(전북대 사범대 체만목 교수, 전주대 사범대 이호선 교수, 우석대 정양 교수)의 글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남학교인 완산고와 해성고 학생들과의 토론회 전문과 외국에서

26) “諸般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現代史를 正道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은, 事物을 直視하고 深思熟考하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과감한 實踐力을 수반하는 勇氣인 것이며, 다음 世代를 責任질 靑年 elite에게는 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박병훈, 「격려사」, 『MINERVA』, 전주고·전주여고, 1973년 8월 8일, 8쪽.

활동하고 있는 동문 통역사의 글도 실려있다. 특이한 점은 여자 고등학교 교지임에도 군사정권의 교육 정책을 알 수 있는 글들이 눈에 띈다. ‘안보대행군에 다녀와서’는 전북의 고교 학생회 간부들이 2박 3일 동안 부안-김제-전주를 걷는 국토행군 체험기이며, ‘전방부대 견학’은 전북의 각 학교 대표가 5대의 버스로 전방부대를 견학하고 쓴 글이다.

1970년대의 교지는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교지의 침체기이며 교지의 분량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군사정권의 정책에 학생으로 직접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5. 나오며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 말까지 전북에서 발행된 총 50종의 교지를 중심으로 시대별 교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많지 않은 양의 교지와 전주, 익산의 학교에서 발행한 교지가 다수인 점, 1950·60년대에 발행한 교지가 많아 종합적인 결론의 도출에는 한계점을 느꼈다. 하지만 전북의 학교 발행 교지에서 시대별로 약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을 관통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관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지는 조선 총독의 훈화를 시작으로 총독부 정책에 공조하는 글들이 다수 발견하였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지는 정책과는 무관하게 학생의 문학 작품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피 공립보통학교 동창회지』의 경우 형평운동 등 당시의 사회운동을 교지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고창』에서는 일본인 학교 설립자를 추모하는 글을 볼 수 있어 매우 이례적인 교지였음을 확인하였다.

1945년 식민지 해방과 1950년 전쟁이라는 국가적 혼란기에서 교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전쟁을 통해 문학의 거장들이 지역 교지에 작품을 투고하고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지역 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인 글이 교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글 전용 정책은 교지에도 혼란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형태의 교지를 양산하기도 했다. 또한 ‘맹세’ 시리즈는 교지에도 게재해 학생의 정신 및 사상 개조 운동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사정권의 집권으로 시작된 1960년대는 교지의 부흥기라 할 수 있다. 한글

과 가로쓰기가 정착되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다양한 계층이 교지를 장식하였다. 이어진 1980년대의 군사정권에서 교지는 급격히 힘을 잃어갔으며 교지에 군사 문화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권 탄압으로 대학교지 문화는 전멸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초·중등 기관의 교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정된 자료와 지면의 제한으로 전북 교지 50종의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여 전북 교지의 발굴 및 수집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북에서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 군산 제일고등학교(영명학교, 1902 개교), 군산영광여고(멜본던 여학교, 1902), 전주생명과학교(전주농림학교, 1910), 이리여고(1924), 남원용성고(1936), 이리공고(1940), 정읍여고(1943), 호남고(1951), 영생고(1953) 등의 교지의 발굴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군산중앙초(1907), 김제중앙초(1911), 전주풍남초(1919), 익산 황등초(1927), 군산제일고(1903) 등의 조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일: 2024. 06. 30. / 심사개시일: 2024. 07. 29. / 게재확정일: 2024. 08. 12.

참고문헌

1. 원자료(교지 및 신문)

『계림』, 『고창』, 『기린봉』, 『기전』, 『남성』, 『목련원』, 『북중』, 『성원』, 『송림』, 『신흥』, 『옥잠화』, 『임피공립보통학교 동창회지』, 『전고』, 『전통』, 『죽순』, 『지원』, 『한길』, 『한서문』, 『희보』, 『햇불』, 『희망』, 『MINERVA』.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논문

- 오문석, 2002,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1)」, 『상허학보』, 상허학회, 13-27쪽.
- 유상수, 2020, 「한국전쟁기 학술원의 창립과정과 한글간소화 파동」, 『승실사학』 제44집, 승실사학회, 165-1873쪽.
- 이규수, 2001, 「마스토미 야스자에몽은 ‘한국의 은인’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호, 역사와 책임, 128-135쪽.
- 이동순, 2016, 「학생 문예지에 나타난 지역문화적 특징」, 『한국지역문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지역문학회, 63-79쪽.
- 정재환, 2006, 「이승만 정권 시기 한글간소화파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명표, 2015, 「전북 지역 근대 잡지의 사적 고찰」, 『영주어문』 제30집, 영주어문학회, 129-139쪽.
- 하채현·황태목, 2018, 「1950년대 전반기 전주 지역 동인지 연구」, 『국어문학』 제67집, 국어문학회, 291-324쪽.
- 황태목, 2021, 「근현대 광주 전남 잡지의 지형과 특성」, 『국어문학』 제78집, 국어문학회, 355-381쪽.

<Abstract>

A Study of Jeollabuk-do School Literary Magazines by Period

Lee, Jung-Wook*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literary magazines by era, focusing on a total of 50 types of school magazines publish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eollabuk-do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1980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number of articles were found in school literary magazines centered on government schools, starting with the sermons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nd in cooperation with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owever, the school papers of privately run schools were composed of students' literary works regardless of policy, and social movements of the time, such as the equity movemen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school papers.

During the national turmoil of colonial liberation in 1945 and war in 1950, we were able to get a glimpse of the hope of the beginning of a new world through school literary magazines. Throughout the war, famous writers submitted their works to local school literary journals. It was also a time when writers could guide students and raise the level of local literature higher than ever before. However, ideological writings resulting from the war began to appear in school literary magazines.

The 1960s, which began with the military regime taking power, can be said to be a period of literary revival for school literary magazines. Works of various genres and diverse classes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adorned the school literary magazine. During the military regime of the 1980s, school newspapers rapidly lost their power, and it was confirmed that military culture was slowly taking root in school literary magazines.

Key Words : School literary magazine, Jeollabuk-do, Japanese colonial period, Liberation, Korean War, Military dictatorship

* Jeonju University, History & Contents, Associate Professor